

“종교연구, 神-敎 탈피 사회-문화 지향”

종교학회 학술대회 ‘21세기 세계종교학-과거 현재 미래’



△한국 종교학회가 3일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타 학문과의 관계에서 종교를 이해했던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다원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종교학 연구 방법론은 무엇일까. 한국종교학회(회장 황필호)는 3일 강남대에서 '21세기 세계 종교학: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 주목된다.

문화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의 종교학"을 발표, 한국·중국·일본의 종교학 연구 현황을 살핀 윤 교수는 "전통적 연구 방법론을 지금의 종교학 연구에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삼국의 종교학자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화·사회적 환경에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것과 쉽게 손을 잡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도 통합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전통적 세계관을 맹신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 교수는 "동양의 종교학계는 문화·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인식해, 동·서 문화의 차별성과 동질성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며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동일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객관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종교학'에서 "지금까지 연구·

축적한 종교학 관련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라고 전제한 워브 교수는 "AAR(미국종교학회)의 경우 인지 과학을 토대로 종교를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종교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 과학분야의 연구 방법론 수용을 강조했다. 워브 교수에 따르면 현대 철학의 초점은 '이해와 설명'의 간극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에 있는데, 종교학계 역시 내부적인 것(종교)과 외부적인 것(문화·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리 교수는 '유럽의 종교학'에서 종교와 무관한 학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다종교 상황에서 선입견 없이 다른 종교에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프리드리 교수는, 사회·평화 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종교학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종교학은 이 방면에서 새롭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여주 신록사 극락보전의 화벽이 떨어져 내려 벽면에 그려진 심우도가 훼손된 채로 발견되고 있다.

신록사 극락보전 벽화 훼손

심우도 그려진 회벽 군데군데 떨어져

고려말 나옹선사가 입적한 것으로 유명한 경기도 여주 신록사 극락보전(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28호)의 벽화가 심각하게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사찰의 중심 건물인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인데, 현재 회벽으로 된 표면이 떨어져 내리면서 벽면에 둘러 그려진 심우도(尋牛圖)가 훼손되고 있다. 훼손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출입문이 있는 열방, 출입문 바로 옆 그림은 표면이 절반 가량 떨어져 내려 무슨 그림인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다. 다른 곳도 군데군데 흩날리듯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계속 방치될 경우 벽화가 원형을 잃을 위험도 안고 있다. 하지만 일차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여주군에서는 "한번 정도 떨어져 내린 상태다. 이 정도는 다른 공사할 때 휴한 중 바르면 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재 관계자는 "해당 군에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벽면 훼손 상태를 정밀조사한 뒤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여 보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해당 시·군이 문화재를 점검, 보고하면 도에서 종합적인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여부를 결정한다.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극락보전은 화려한 다포양식의 겹처마 팔각지붕 건물이다. 특히 운치있는 합각벽 무늬로 연중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기도 하다. 지금의 건물은 1800년에 완공된 것으로 1978년에 마지막으로 중수했다. 신록사는 현재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을 비롯해 국가지정 문화재만 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6월중 경기도와 공동으로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보박물관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문화재 길잡이’ 신설

문화재청이 어려운 문화재 용어에 대한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도난문화재' 코너를 강화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6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새로 개설한 '문화재 길잡이' 사이트. 문화재청은 문화재 용어가 대부분 한자어거나 전문용어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문화재 용어 △문화재의 각 부분 명칭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단장

문화재 해설 코너를 추가해 '문화재 길잡이'를 신설했다. 또 기존의 '도난문화재' 코너도 최근 도난된 자료를 새롭게 올려 도난문화재 회수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된 37건의 자료 가운데는 국보 제282호인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해 모두 18건의 불교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총 113건의 자료가 올라 있다. www.ocp.go.kr 권형진 기자

“주인되는 삶 체험하며 살자”

보광스님, 정토학회 세미나서 주장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 치유는 믿음의 대상을 삼보·자성·인과·아미타불로 구체화할 때 가능하다" 현대의 고(苦)를 끊는 방법으로 열불 수행을 강조한 한국정토학회 세미나가 6일 경기도 청계산 정토사에서 열렸다. 이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열불행자의 믿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보광(동국대 교수) 스님은 현대사회를 불신·불안·불만·불확실 시대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삼보·자성·인과·아미타불에 대한 불신에서 찾았다. "자아를 성찰하고 주인되는 삶을 살 때 불안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전제한 보광 스님은 불안심리란 자성이 청정함을 알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인과의 도리를 믿고 실천할 때 불교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며, 현대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광 스님은 "신앙은 이론적 체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믿음의 세계관을 갖기 위한 것"이라며 "정토 열불행자들의 신앙 생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적인 정토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적인 신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토학회가 '열불신앙 결사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중국초기 정토신앙(중앙승가대 태연 스님), 신라시대 열불결사(이화대 김명미 교수)고려시대 원묘요세의 열불결사(부산대 채상식 교수) 일본의 열불신앙의 전개와 그 의의(동아대 강동균 교수) 등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중국 산둥반도 법화원에 세워진 '일주문'.

中법화원에 일주문

해상왕 장보고의 유적지인 중국 산둥반도 적산 법화원에 일주문이 세워졌다. 법화원 일주문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길너)는 5월 22일 중국 산둥성 영성시 정부와 공동으로 1년만에 일주문을 건립했다. 높이 6m, 길이 5m 규모로 조성된 법화원 일주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서예가 조박초 前 중국불교협회장이 편액을 썼으며 공사비는 1천5백만원이 소요됐다. 이번에 일주문이 세워진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창건한 3대 법화원 중 하나다. 김주익 기자(ji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마히돌대 컴퓨터센터

남전대장경 전산화 '주목'

마히돌대 컴퓨터 센터는 세계 최초로 남전대장경의 전산화를 성공해 주목받고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불전 연구소다. 이 연구소에서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불어 경전의 전산화 과정과 전산본 경전 그리고 CD롬 경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컴퓨터 센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CD롬 '불교 경전 정보 검색(Buddhist Scriptures Information Retrieval)'. 여기에는 남전대장경 45권, 주석서 55권 기타 경전 15권 등 115권 불어 불교문헌이 입력되어 있다. 또 태국어와 불어-영어 음역어로 기록된 이 CD롬은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제공한다. 이 기능은 모니터에 나타난 경전 내용중 일부분을 선택하면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원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따라서 불자 네티즌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30여 개의 경전 문구를 사용해 멀티미디어 기능 등 CD롬 경전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불어 색인 검색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전자사전 기능도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태국 유적지에서 발굴된 불상 30여 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감상할 수 있다. 태국의 불상은 대부분 결과부착한 자세에 뾰족한 머리 모양과 완만한 곡선 형태의 흉상이 주류를 이룬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http://www.mahidol.ac.th/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전져 울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웅엄하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6. 법구경 I	09. 탄트라 다양한 깨달음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탄트라 秘典 II	06. 법구경 II	10. 심우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열 번 가슴을 넘어서 남전	22. 소중한 비밀 깨버린 강론
03. 탄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신심영	15. 轉, 빈 거울에 담긴 노래 미조	19. 법의 연꽃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지유
04. 탄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환안 연꽃(대사 강론)	16. 마음을 버려라 임제	20. 轉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24.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육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